

생명나눔은 학인 스님과 학생 18명에 장학금을 지원했다.



미숙아 망막증 환자인 샤하디는 200만 원을 지원받았다.


광동고 댄스팀의 열띤 무대는 음악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0월 21일 남양주 불암사 경내에서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함께하는 제15회 불암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국화 가득 산사 채운 선율…생명나눔 소중함 나눠

생명나눔으로 함께 사는 세상

9. 생명나눔 산사음악회

남양주=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을 맞아 국화 향으로 물든 남양주 불암사에서 생명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10월 21일 남양주 불암사 경내에서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함께하는 제15회 불암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2007년 시작해 올해 15회째를 맞은 산사음악회는 대중들에게 문화를 통해 생명나눔의 가치를 알리고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음악회는 '새로운 도약, 여러분과 함께'를 주제로 진행됐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 김병주 국회의원, 정현숙 생명나눔실천본부 후원회장을 비롯해 생명나눔 후원회원과 불암사 신도,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잊고 있었던 셀렘과 즐거움을 되찾기를 염원하며 열린 음악회에는 체험과 공연을 즐기려는 관람객이 몰리면서 불암사 경내를 더욱 활기차게 했다.

행사에 앞서 산사음악회의 분위기를 북돋아줄 식전행사가 진행됐다. 불암사 합창단의 '바람이 부는 산사'에 이어 '그대 없이는 못 살아'가 이어졌다. 공연 많은 관중의 환호와 박수를 이끌어 내면서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신명 나는 무대에 이어 일면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2001년 창립된 일면장학회는 배움에 열정을 가진 학인 스님들에게 공부와 수행정진을 지원하는 한편 불자학생들도 지원해 불교인재를 양성하고자 만들어진 재단법인이다. 일면장학회의 명칭은 전 조계종 호계원장과 초대 군종교구장, 동국대 이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과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일면 대종사의 법명에서 따온 것이다. 매년 전후반기를 합쳐 약 30여 명에게 장학금 30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는 학인스님 11명, 학생 7명 등 총 18명을 선정, 장학금 1380만 원을 지원했다. 또 미숙아 망막증을 치료비가 필요한 환아 샤하디를 치료비 지원 환자로 선정, 200만 원과 일면 스님 자서전, 단주를 선물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환우들에게 삶의 희망을 전하기 위해 연간 60여 명의 환자에게 2억여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날 치료비를 지원받은 샤하디는 24주 미숙아로 태어나 호흡곤란증후군, 폐기능손상 등으로 생사의 고비를 넘기며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단계로, 미숙아 치료 마지막 단계인 미숙아 망막증 치료 중에 있다. 샤하디의 아빠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실명을 예방할 수 있기에 치료비 전달은 더욱 큰 힘이 된다"며 생명나눔실천본부와 불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10월 21일 불암사 경내 개최
'새로운 도약, 함께' 주제로
장학금 · 환자 치료비도 전달
"생명나눔 확산 앞장서겠다"



산사음악회는 불암사 합창단의 무대로 막이 올랐다.

이와 함께 2014년부터 생명나눔실천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장기기증 희망등록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동국대 참사람사회공헌센터에게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들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동안 센터가 모집한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서를 생명나눔실천본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본 행사가 마무리 되자 생명나눔실천본부 산하 단체인 마하무용단(단장 정현숙)이 무대에 올라 산사음악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광동고 댄스팀, 배근호, 코리아로얄오케스트라, 주권기, 비니쌤 등이 출연해 국화향 가득한 불암사의 가을밤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불암사 산사음악회는 문화공연만을 즐기는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과 나눔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고자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하고 "국화향 가득한 불암사에서 여러 장르의 다양한 음악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풀어내고 함께하는 이 순간을 소중히 간직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장기기증 운동 활성화와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이날 산사음악회를 "날씨는 쌀쌀하지만 분위기와 마음만은 따뜻한 행사"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사장 스님의 인생 숙원사업이자 원력인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내년 30주년을 맞이한다"면서 "교구도 생명나눔실천본부를 더욱 응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부대행사로 공연장 앞에서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이 진행됐다. 베리굿의원에서는 의료진 4명을 파견, 혈압 및 당뇨 측정뿐 아니라 응급상황에 대비했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기금 마련을 위해 송산노인복지관과 마하무용단이 운영하는 바자회도 진행됐다. 의류, 신발 등 생필품과 국수, 파전 등 먹거리 판매수익은 전액 환자치료비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보건복지부 지정 장기기증 등록기관으로 1994년 부처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생명나눔 사업을 시작한 지 올해로 28년이 됐다. 장기 및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환자 치료비지원,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 불우이웃돕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모금을 위한
제14회 생명나눔 자선음악회
'희망의 빛으로'

출연진


마하무용단


행복나누리문화예술단
(수리온태권도시범단)


주권기


이소원


임지민

일시 2023년 12월 1일(금) 오후 5시
장소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대공연장
주최 (사)생명나눔실천본부, 마하무용단
문의 02-734-8051 (티켓 2만원)
난치병어린이돕기 후원계좌 농협 053-01-271485